인 사 말

오 세 욱
(사)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/
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

안녕하십니까? (사)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제19대 회장인 오세욱 교수입니다.

지난 1년 동안 19대 임원진과 함께 다양한 학회 활동을 펼쳐왔으며, 특히 작년 제주 해비치 호텔 & 리조트에서 개최된 제39회 정기학술대회는 2개의 Plenary Session, 34개의 식품안전 주제 세션, 신진과학자 세션, 포스터 발표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새로운 위생 · 안전 정책과 국제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

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임원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

첫째, 식품위생 · 안전성 연구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. 현대 사회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해결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학회는 식품기업, 정부, 대학 간 활발한 학문 교류와 정보 확산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고, 사회적 안전 이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.

둘째, 학회 학술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. 학술지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매체이며, 그 수준은 곧 학회의 위상을 반영합니다. 현재도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, 더욱 경쟁력 있는 저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.

셋째, 학회 홈페이지를 현대화하겠습니다. 학술지 투고 시스템과 연동된 학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가독성을 높이고,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올해는 청색을 상징하는 갑(甲)과 지혜롭고 날카로운 뱀의 특성이 결합된 '푸른 뱀의 해'입니다.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, 이를 발판 삼아 2025년에는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. 학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혁신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